

# 한 · 중 · 일의 수출경쟁력



## 한국의 수출외화가득률 저조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로 수출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침체이후 수출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다시 견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수출산업은 고기술 고부가가치시장에 대한 접근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빠른 추격으로 최근 해외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최근 자료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 일본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고, 우리 수출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향후 수출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모색해 본 것이다.

## 한국경제 높은 수출의존도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수출/명목GDP)는 2002년 28.2%에서 지속 상승하여 2008년에는 45.4%에 달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 경쟁국인 일본의 16.2%는 물론 중국의 33.8%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08년 수출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2.6%p

로 경제성장률 2.2%를 상회하고 있으며, 수출에서 수입을 공제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의 경우에도 1.1%p로 경제성장률 2.2%의 약 절반에 해당될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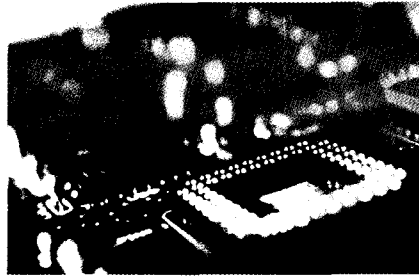
## 한국과 일본 세계시장점유율 하락

상품수출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한국 상품 수출의 세계 수출시장점유율은 2.8%에서 2008년 1~8월 중 2.5%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같은 기간 7.7%에서 4.8%로 크게 낮아졌으나, 중국은 4.0%에서 9.0%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수출(정부서비스수출을 제외한 상업서비스 수출)의 세계시장점유율은 중국과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 서비스수출의 세계시장점유율은 2007년 기준 1.9%로 1995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6%에서 3.7%로 급증하였으며, 일본도 1995년의 5.5%보다는 하락하였지만 3.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중일 상품수출 및 서비스수출의 세계시장점유율 비교〉**

	한국	중국	일본	기준연도
상품수출/세계상품수출	2.5%	9.0%	4.8%	2008년1-8월
서비스수출/세계서비스수출	1.9%	3.7%	3.9%	2007년



한국과 중국, 일본의 3국의 외화가득률, 부품소재 국산화율, 고기술산업비중, 내수시장비중 등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산업이 일본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창출력 미흡**

한국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하여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2005년 기준 산업연관표상 외화가득률(외화가득액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71.3%로 일본의 86.9%는 물론 중국의 74.7% 에도 못미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로 발생하는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정도가 더 크다는 의미이다. 이는 국내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하여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의 수입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2005년 기준 부품 국산화율은 중국이 86.5% 일본도 89.2%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78.2%에 머물고 있다.

기술력 우위 수출산업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우위를 점하던 고기술 상

품의 시장점유율이 중국에 의해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다. 한국의 고기술 제조업 수출비중은 1995년 57.5%에서 2006년에 68.7%로 증가하였다. 한편 일본은 같은 기간 82.3%에서 80.6%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32.5%에서 55.8%로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고기술 수출에서 점하던 우위가 사라지고 해당 산업에서의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기변동에 민감**

한국 수출산업은 상대적으로 해외경제 상황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과 같이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중국과 일본보다 한국 수출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우리 내수시장이 취약하여 수출 판로가 막힐 경우 그만큼 내수 판매비중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OECD의 2005년 국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수출시장/내수시장의 비중은 20%로 중국의 14.3%, 일본의 8.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수출 부문 평가 항목〉

		한국	중국	일본	기준연도
부가가치창출력	외화가득률	71.3%	74.7%	86.9%	2005년
	부품국산화율	78.2%	86.5%	89.2%	2005년
기술경쟁력	고기술제조업수출비중	68.7%	55.8%	80.6%	2006년
세계경기민감도	수출시장/내수시장	20.0%	14.3%	8.5%	2005년

외화가득률은 수출액에서 수입유발액을 마이너스 하고 수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부품국산화율은 국산재 중간수요를 국산재 중간수요 더하기 수입재 중간수요하여 나눈 것이다. 고기술제조업은 고기술제조업과 중고기술제조업을 합한 것이다. 내수시장은 산업연관표 상의 국산재 중간수요와 국산재 소비, 국산재 투자를 합한 것이다. 수출시장은 수출이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외화 유출 방지**

글로벌 여건 변화에도 우리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다가오는 세계경제 회복기에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력 부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의 경제적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국내 수출산업의 부품소재에 대한 높은 해외의존성으로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소재와 관련된 원천기술의 R&D 투자확대,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중하나인 국제 표준 확보에도 주력

해야 한다. 새로운 부품소재 부문의 경우 국제표준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확대**

둘째, 고기술, 고부가 가치제품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운 '577 전략'의 추진이 보다 구체화되고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연구의 정부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원천기술 연구는 리스크가 높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원천기술 개발에 정부의 참여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만 한다.

나아가 기술개발 성과가 상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학과 산업의 중간에 위치한 매개 기술투자를 확대하는 정책도 요구된다. 한편 기술경쟁력의 핵심인 국내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 전문인력 영입도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

### 내수시장 육성 주력

셋째 수출산업의 높은 글로벌 경기 민감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수시장 육성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수시장으로의 판로 대체가 가능한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소비세의 추가 인하 및 감세기간 연장 등의 보다 적극적인 산업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최근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상문제가 국제분쟁화될 조짐이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무조건적인 산업지원이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수입제품의 국내 유통과정 투명화, 원산지 위조 단속강화 등을 통해 국산품이 내수시장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세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외 여건 변화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우선 최근 원저(低)로 인해 높아진 가격경쟁력을 십분 활용하여 마이너시장에 대한 진출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이너시장에 대한 통상 정보망 확충, 민관 합동시장 개척단 파견, 시장수요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미국, 일본 등 우리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대규모 경기부양책도 적극 이용해야 한다.

해당국 산업계와의 민관 교류 확대,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출공조 시스템 구축,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 대외 여건 변화 적극 이용

보다 구체적이 내용으로, 분석 배경에 있어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로 수출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향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는 국면이 도래하게 되면 수출산업이 성장을 다시 견인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수출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 보고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 OECD가 구축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1995년, 2000년, 2005년 산업연관표, OECD 양자간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의 무역 관련 자료 등을 이용하여 한·중·일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 2002년 산업연관표까지 발표되었으나 OECD가 세계 주요국의 산업연관표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자 OECD 자체 추정으로 중국의 2005년 산업연관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수출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한·중·일 수출의 외형과 경쟁력을 비교한다. 외형비교에서, 수출의 세계시장점유율이란 각국 상품수출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한국무역협회, IMF)이다.

서비스업 수출 비중 및 세계 시장점유율이란 서비스 수출이 상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서비스 수출이 세계서비스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WTO)이다.

경쟁력비교에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이란 산업연관표상 외화가득률(외화가득액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부품 국산화율(한국은행 및 OECD)이다. 기술경쟁력이란 고기술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OECD)이다. 수출산업의 해외 시장 의존성이란 산업연관표의 수출내수시장 비중

(OECD)이다.

####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45.4%까지 급등

수출의 경제적 위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수출/명목GDP)는 2002년 28.2%에서 2007년에 35.4%로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환율효과로 달러베이스 명목GDP가 감소하면서 45.4%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동북아 경쟁국인 일본의 16.2%는 물론 중국의 33.8%보다도 월등히 높은 정도로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성은 과도할 정도이다.

경제 내 각 부문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2008년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6%p로 경제성장률 2.2%를 상회한다. 2007년의 경우에도 수출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5.2%p로 성장률 5.1%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수출에서 수입을 공제한 순수출의 2008년 성장기여도는 약 1.1%p로 경제성장률 2.2%의 약 절반(47.7%)에 해당되고 있다. 즉, 2008년 경제성장률의 절반이 대외 교역때문이며 수출의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면 2008년 성장률은 1%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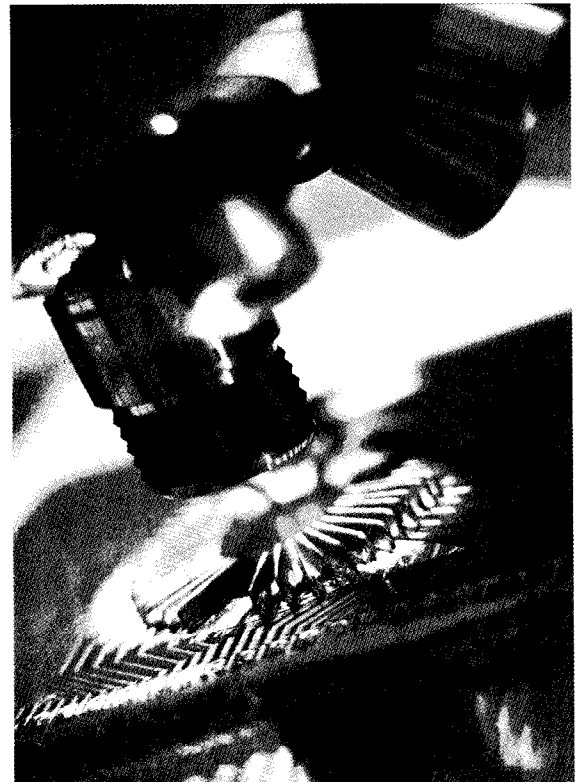
외형비교에서, 2000년 한국 상품 수출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8%에서 2008년 1~8월중 2.5%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2008년에 들어서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같은 기간 7.7%에서 4.8%로 크게 낮아졌으나, 중국은 4.0%에서 9.0%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

한국 수출산업은 상대적으로 해외경제 상황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과 같이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중국과 일본보다 한국 수출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우리 내수시장이 취약하여 수출 판로가 막힐 경우 그만큼 내수 판매비중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서비스업 수출의 제조업 수출 대비 비중이 정체되고 있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서비스 수출이 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6%로 1995년의 17.7%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중국의 상업서비스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95년 2.4%에서 2007년에 10.0%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상업서비스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95년 4.7%에서 2007년에 17.8%로 증가했다.

경쟁력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로 발생하는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05년 기준 산업연관표상 외화가득률(외화가득액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3%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외화가득률은 1995년 75.1%에서 2000년에 71.8%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05년에는 2000년 대비 0.5%p 하락했다. 중국의 2005년 기준 산업연관표상 외화가득률은 74.7%로 1995년의 73.0% 보다 8.3%p 하락했다. 일본의 외화가득률은 1995년 91.8%에 달하였으나 2005년에는 86.9%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외화가득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러한 한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외화가득률은 국내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하여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의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5년 기준 부품 국산화율은 중국이 86.5%, 일본도 89.2%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78.2%에 머물고 있다.

우리 내수시장이 취약하여 수출 판로가 막힐 경우 내수 출하비중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OECD의 2005년 국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수출시장 내수시장 비율은 20.0%로 중국의 14.3%, 일본의 8.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시장 내수시장 비중은 1995년 5.6%에서 2005년에 20.0%로 증가했고, 중국의 수출시장 내수시장 비중은 1995년 9.0%에서 2005년에 14.3%로 증가하였으나, 아직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2005년 수출시장 내수시장 비중은 8.5%로 1995년의 5.3% 보다 3.2%p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만약 최근과 같이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중국과 일본보다 한국 수출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한중일 모두 IT부문 수출 비중 가장 높아

한·중·일 모두 반도체, 컴퓨터 등의 IT 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기계 산업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다. 2006년 기준 상품 수출에서 전기기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36.6%, 중국이 27.9%, 일본이 39.3%로 각국에서 다른 부문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의 경제적 이익 유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국내 수출산업의 부품소재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성으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의 상당부분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소

재와 관련된 원천기술의 R&D 투자 확대,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중 하나인 국제 표준 확보를 위해 새로운 부품소재부문의 경우 국제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민·관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 부품소재산업 육성하여 수출의 경제적 이익 방어

고기술 고부가 가치 제품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의 정부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 원천 기술 연구는 리스크가 높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천기술개발에 정부의 참여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운 '577 전략'의 추진이 보다 구체화되고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577 전략이란 GDP 대비 5%의 R&D 투자, 지식기반서비스 등 7대 분야 중점 투자, 7대 과학기술 강국 실현이다. 또한 기술개발/성과가 상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학과 산업의 중간에 위치한 매개 기술투자를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한편 기술경쟁력의 핵심인 국내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 전문인력 영입도 꾸준히 확대해야 할 것이다.

### 기초원천 연구에서 정부 역할 제고

수출산업의 높은 글로벌 경기 민감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수시장 육성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내수시장으로의 판로 대체가 가능한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소비세의 추가 인하 및 감세기간 연장 등의 보다 적극적인 산업보호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인상문제가 국제분쟁화 될 조짐이 보여지는 것과 같이 무조건적인 산

업 지원이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제품의 국내 유통과정 투명화, 원산지 위조 단속 강화 등을 통해 국산품이 내수시장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마이너시장 진출 독려

세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외 여건 변화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우선 최근 원저(低)로 인해 높아진 가격경쟁력을 십분 활용하여 마이너시장에 대한 진출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이너시장에 대한 통상정보망 확충,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시장수요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미국, 일본 등 우리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대규모 경기부양책도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이다.

해당국 산업계와의 민관 교류 확대,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